

<윤리학의 기본원리> 제1장

저자: 폴 테일러

교안작성자: 이한

제1장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제1절 윤리학과 도덕

윤리학의 정의:

윤리학의 중요한 목표:

도덕규범의 정의:

행동을 해야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

도덕판단, 평가의 표준, 규칙에 대한 근본적 질문: 타당한가?

제2절 기술윤리학, 규범윤리학, 분석윤리학

기술윤리학

규범윤리학 -

분석윤리학 - 첫째, 둘째. = 규범윤리학의 전제를 탐구

제3절 관습적 도덕과 반성적 도덕

규범윤리학과 분석윤리학의 궁극적 목적:

무비관적 도덕률의 흡수 = 관습적 도덕 = 독단 = 무도덕적 생활 = 전적인 회의주의

도덕적 성숙의 조건:

우리의 노력:

제2장 윤리적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의 주장 : = 규범윤리학의 가능성을 부정

윤리적 상대주의 진술의 가능한 세가지 의미: 1. 2. 3.

제1절 기술적 상대주의

핵심진술:

증거 (1) (2) (3)

요약:

평가1: 구체적 도덕적 표준(C) ≠ 궁극적 도덕원리(U)

C는 달라도 U는 같을 수 있다.

평가2: 사람들이 U를 달리 받아들이고 있어도(주관적), U는 실제로 구성할 수 있다.

제2절 규범윤리적 상대주의

모순으로 보이는 두 규범적 진술은 완성하면 참 : ex)

핵심진술:

규범윤리적 상대주의가 관용이라는 도덕명제에 취하는 태도:

논거1(논증방식1): 기술적 상대주의로부터 추론

논거1의 내용:

논거1에 대한 비판 i) 진리는 주관과 관계없다 ii) 신념의 기원은 신념의 타당성과 관계없다 (이는 논쟁에서 상대방 주장과 결부된 부당한 이익을 지적하는 신빙성 감쇄의 전형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iii) 제3자 입장에서 ‘다양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관찰만으로는, 실천적 참여자의 입장에서 피해갈 수 없는 규범 그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다.

제3절 분석윤리적 상대주의

여기서부터는 서면강의로 대체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대주의자의 논거 중 두 번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거는 다시 작은 가지가 두 개 나 있습니다. 그 중 하나(2-2)는 개념적 상대주의이고, 다른 하나(2-3)는 방법론적 상대주의입니다.

먼저 개념적 상대주의를 살펴보지요.

논거2-2: 개념적 상대주의

개념적 상대주의자들은 도덕적 개념의 의미는 주어진 문화의 윤리 체계 전체의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옳다”, “그르다”라는 당위의 개념 자체가 문화의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지요. 문화 X에서는 “그르다”라는 말이 “공동 선에 해를 끼치는” 것인 반면에 문화 Y에서는 “그르다”가 “신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뜻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화 X에서는 일부다처제가 공동선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금지되고, 문화 Y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신에 의하여 허용되기 때문에 그르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경우 개념적 상대주의자의 견해에 따르면 두 판단은 모두 참이며 양자 사이에는 도덕적 진리의 측면에서 아무런 모순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견해의 귀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편적인 도덕적 진술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판: 논쟁의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펼쳐대면 별다른 준비를 안하곤 있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이대야 할 핵심 비판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윤리체계의 개념과 문화체계의 개념은 구별해야 한다”입니다. 한 사회 내에서도 다시 문화는 이질적인 내집단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50대 노인의 문화와 20대 청년의 문화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대 노인의 윤리적 사고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20대 청년의 윤리적 사고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0대와 20대는 모두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이 살아가는데 분쟁을 해결할 보편적인 규범을 실존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편적 문화는 실존적으로 요청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에 따라서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윤리란 그 이유가 자의적이거나 오류에 찬 이유가 아니라 이성적 검토에 의한 이유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그르다”라는 말이 “공동 선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또는 “신에 의해 금지된다”, 또는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말로 각각 이해되는 것은 채택하고 있는 윤리적 신념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그 윤리적 신념의 우열을 가릴 개념적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객관적으로도 이를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르다고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고, “아, 윤리란 사회마다 개인마다 다르고 통약불가능하구나”라고 막다른 골목에서 생각을 멈추지 않고, “당신이 말하는 공동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해를 끼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신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그른가? 신이 악한 신이라도 이는 마찬가지인가?” “권리란 무엇인가” 등등 심층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논거2-3: 방법론적 상대주의 - 도덕적 지식의 부정

방법론적 상대주의자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어떤 도덕적 명제가 참이라고 보는 근거나 추론 방식이 다르다는 데 주목한다. 결국 어떤 절차를 따라야 제대로 된 도덕적 지식으로 이르게 되느냐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왜냐하면 A와 B가 서로 자기가 낫다고 싸우면 해답이 없기 때문이란다. C가 나서서 판정을 한다 해도, C 자신도 자기 나름의 기준을 단순히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절차나 기준을 선택하게 되면 이 선택을 정당화하는 다른 이유나 기준을 대야 할 것이고 결국 무한 소급하게 된다. 자의적인 멈춤을 통해서만 판단장대의 무한 소급을 피할 수 밖에 없다.

비판: 윤리체계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최소한의 공리가 되는 기준들을 세울 수 있다. i) 힘의 세부적 발현양식이 아니어야 한다(각 인이 자신의 자유 행사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ii)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과학지식에서 관찰의 이론의존성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무한소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과학 지식의 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각 실험마다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론 부분 이외의 것은 고정시키는 상호 지지의 방식으로 적절한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다. 연역적으로 완벽한 지식을 구성하려는 야심찬 시도가 아니라면, 무한소급이라는 추상적인 비유 놀음을 통해서 지식의 구성 가능성을 배척하려는 것은 잘못된 노력이다. 도덕지식 역시 구성적 방법에 의해서 구축될 수 있으며, 흔들릴 수 없는 단 하나의 테제로부터 연역되는 방식으로만 구성해야 하는 법은 없는 것이다.

제4절 윤리적 절대주의

도덕규범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 1) 어떤 도덕규범은 문화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행위에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다.
- 2) 규범이 어떠한 예외도 갖지 않는다.

그래서 1)은 윤리적 보편주의라고 불러야 옳다.

그리고 2)의 개념은 윤리학 내부에서 별다른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 명제를 주장할 때, 윤리적 명제는 보다 고차적인 원리의 표현이며, 상황에 따라서 그 고차적인 원리는 상이한 표현양식을 가진 명제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ex) 거짓말하지 마라. --->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짓말 하지마라. 등등.